

1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금융불안 딛고 반등, 구제 기대 [다우: 8,219.49pt (+0.15%)]	전날에 이어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다우지수가 한때 8,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낙폭이 지나치다는 인식과 더불어 정부의 구제 기대가 저가매수세를 불렀음.
유가 5% 또 급락 [WTI: \$35.40 -\$1.88]	국제유가가 또다시 5% 급락하며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음.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88달러(5%) 하락한 35.40달러로 마감했음. 마감 가격 기준으로는 지난달 19일 배럴당 33.87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가격임.
실업급여 지속 수령자 1982년래 최대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는 5만4,000명 증가한 52만 4,000명을 기록, 감원이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음. 계속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449만 7,000명을 기록, 전주 461만 2,000명에 비해 증가했음. 이는 1982년 이후 최고 수준임.
ECB,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 2.0%로 조정.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물가가 안정을 되찾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어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그러나 내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유럽증시, 장초반 하락..7일 연속 떨어져	유럽 증시가 7일 연속 하락세. 주된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日 기업실적 나쁜데 엔高 방관 왜?	일본 엔화 강세 행진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의 방관적 자세가 의문을 사고 있음. 일본 업계에서는 엔화 강세가 이익의 상당부분을 갉아먹었다며 직간접적으로 정부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 복지부동. 경제의 건강한 체질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즈니스위크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中경제 세계3위...GDP 이미 독일 추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2007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에 잠정 발표한 11.9%에서 14일 13.0%로 수정해 확정. 이에 따라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 2007년 이미 독일을 추월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
박삼구 회장 “금호생명 매각, 상반기중 마무리 될 것”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호생명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5일 "상반기 중 금호생명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박삼구 회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1월 회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 등 몇 곳에서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힘

제목	주요 내용
무디스, 韓 10개 은행 등급하향 검토(상보)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5일 한국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10개 금융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해당 은행은 KB금융 자회사인 국민은행, 우리금융과 자회사인 우리은행,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임. 이번 조치는 한국 은행들의 외채 부담에 대한 무디스의 관점을 반영한것으로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채무변제 능력은 한국 정부의 외화 채무변제 능력에 좌우된다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국가 신용등급을 상한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은행, 5년 10억불 글로벌본드 발행 착수	산업은행은 지난 15일 밤 늦게 5년 만기 글로벌본드 10억달러 발행을 공식 발표함. 당초 아시아 시장 개장 시점에 발행사실을 공표하려 했으나, 무디스가 한국 은행들에 대한 등급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발표가 다소 늦어짐. 산업은행은 당초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투자자들의 수요가 만기 5년 이상 채권에 몰리면서 정부의 보증없이 발행키로 했으며,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을 경우, 만기 3년 이내 채권만 발행할 수 있다. 시장 예상금리는 미 국채수익률(T)+675~700bp 수준이며, 프라이싱은 오는 17일 결정할 예정.
3%벽 깬 CD금리..얼마 나 더 내릴까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3%벽이 깨졌으며, 달러-원 환율 급등, 당국의 추경편성 논의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국고채 금리 등 다른 채권금리는 급등(채권가격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CD와 기업어음(CP)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감.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금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의지가 확고해, 당분간 단기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일각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수준까지 CD금리가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음.
건설사, 워크아웃 13 퇴출 3 추정(한신평)	한국신용평가는 16일 자체 분석을 통해 국내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총 16곳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워크아웃 또는 퇴출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한신평은 "비재무항목을 보면 업력, 사업포트폴리오, 사업장 위험, 계열사 지원을 포함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 대형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상위 1~10위 건설사는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났다"며 "시공능력 순위가 낮을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